

제3정당의 한계와 가능성 : 제22대 총선 종로구 선거구를 중심으로

허필윤* · 하세헌**

• 요약 •

본 연구는 제22대 총선에서 서울 종로구의 제3정당 후보를 중심으로, 참여관찰과 심층 인터뷰를 통해 한국 정치에서 제3정당이 직면한 한계와 가능성을 분석하였다. 우선 제3정당의 정의를 위하여 미국과 한국의 관련 연구를 다각적으로 분석하였으며, 연구의 대상으로 개혁신당을 선정하였다. 연구 결과, 한국의 제3정당이 겪는 주요 어려움으로 지역 기반과 조직적 지원의 부재가 확인되었다. 제3정당 후보는 지역 맞춤형 공약 수립과 유권자와의 긴밀한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이로 인해 선거에서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였다. 특히 각종 제도적 문제들은 제3정당의 입지를 더욱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제3정당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 풀뿌리 조직의 강화, 차별화된 정책 개발, 정치제도 개혁 등을 전략적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주제어 : 제22대 총선, 제3정당, 개혁신당, 종로구, 참여관찰

I. 서론

정권 심판의 강한 바람 속에서 2024년 4월에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이하 “총선”)는 야당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압승과 여당 국민의힘의 참패로 끝났다. 민주당과 그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당연합은 175석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창당한 조국혁신당은 12석을 획득하여 두 당은 총 187석을 차지했다. 국민의힘과 그 위성정당인 국민

*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행정학과 박사수료 : 주저자

** 경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 교신저자

의미래는 108석을 얻는 데 그쳤다.

한편 이번 총선은 양당체제가 한층 고착화되고 제3정당이 설 자리를 잃어가는 현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 총 6개 정당이 당선자를 배출했지만, 민주당과 국민의힘(위성정당 포함)이 전체 의석 가운데 절대 다수¹⁾를 차지하며, 양당의 독점 구조는 더욱 강화되었다. 반면 무소속 당선자가 전무하고, 그동안 지역구와 비례대표에서 꾸준히 당선자를 배출해오던 정의당²⁾이 한 명의 당선자도 배출하지 못했다.

그동안 한국 정치에서 제3정당은 큰 역할을 하였다고는 볼 수 없었다. 제15대 총선에서 자유민주연합이 50석을, 제20대 총선에서 국민의당이 38석을 차지했던 것을 제외하고는 제3정당은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였다. 이렇듯 한국에서 제3정당은 수 많은 시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실패에 그쳤으며, 이로 인하여 제3정당의 성공 가능성에 대해 의문과 회의를 제기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아왔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민들은 여전히 제3정당에 대한 수요를 가지고 있다. 한국갤럽이 2023년 6월 13일부터 15일까지 조사한 정당지지율 조사³⁾에 따르면, 자신을 “무당층”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27%로, 민주당 및 국민의힘의 각각 지지율인 34%에 필적하는 수치를 보였다. 하지만 이번 총선 결과와 같이 유권자들이 양당을 선택하는 경향이 더욱 심화되었다는 것은 제3정당이 무당층의 지지를 온전히 흡수하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제3정당에 관한 연구들은 제3정당의 역할을 크게 강조하고 있다. 일부 연구에서는 제3정당이 양대 정당이 외면한 문제를 제기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정치 담론의 범위와 내용, 그리고 공공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본다.⁴⁾ 또한, 제3정당이 주요 정당 간의 정책 차이를 유발하여 양당 체제보다 더 다양한 정책 제안을 가능하게 만든다는 점도 강조된다.⁵⁾ 이와 같이 제3정당은 여러 정치적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담론과 공공정책 형성 과정에서 대안적 관점을 제시하고, 기성 정당들 사이에서 간과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정당정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제3정당이 한국에서는 왜 성공할 수 없었는지, 그리고 성공하려면 어떠한 조건을 갖춰야 하는지에 대해 연구하고

1) 두 당은 전체 의석의 94%(283/300), 지역구 의석의 98.9%(251/254)를 차지하였다.

2) 제22대 총선에서는 녹색당과 합당을 통해, 녹색정의당으로 출마하였다.

3) 한국갤럽 자체조사, 한국갤럽, 23.6.13~23.6.15, 무선전화면접, RDD, 1000명, 9.2%, 95% 신뢰수준에 $\pm 3.1\%P$ 이다.

4) Rosenstone, S. J., Behr, R. L. and Lazarus, E. H., *Third Parties in America: Citizen Response to Major Party Failur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6.

5) Adams, J. and Merrill, S., “Why small, centrist third parties motivate policy divergence by major partie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100, no. 3, 2006, pp.403-417.

자 한다. 이하에서는 먼저 기존 문헌을 검토하여 제3정당에 대한 개념을 정의한다. 이어서 역대 한국 총선에서 등장한 제3정당들에 대해 살펴보고, 이번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대두한 제3정당들의 성립과정에 대해서도 언급한다. 이를 통해 본 논문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제3정당의 조건을 충족하는 정당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를 명확히 한다. 이를 바탕으로 서울시 종로구를 대상으로 제3정당 후보의 선거과정을 면밀히 분석하고, 한국 선거 정치에서 제3정당이 지닌 한계와 가능성을 고찰한다.

제3정당 후보의 선거과정을 분석하기 위해 제22대 총선 선거운동 기간(2024.3.28.~4.10) 동안 서울시 종로구에서 참여관찰과 관계자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종로구를 연구 대상으로 선택한 이유는 연구자가 거주하는 지역으로, 다양한 참여관찰이 용이한 환경적 요인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참여관찰은 현장에서 행동을 관찰하되, 타인과 깊은 관계를 맺지 않는 “수동적 참여 방법”을 활용하였다.⁶⁾ 수동적 참여 방법은 연구자가 관찰 대상에게 실제 구성원으로 나타나지만, 과학적 활동은 은밀하게 수행하는 방식으로, 연구자가 일종의 그림자(Shadowing) 역할을 한다.⁷⁾ 이 방법은 대상의 자연스러운 행동을 관찰하고 포괄적인 맥락적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심도 있는 이해가 부족할 수 있는 한계를 지닌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심층 인터뷰를 병행하였다. 심층 인터뷰는 종로구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선거캠프를 직접 방문하여 이루어졌으며, 관련 자료를 보완하기 위해 타 지역 후보의 선거캠프도 참고하였다. 인터뷰 참여자는 총 6명, 인터뷰 횟수는 총 7회이며, <표 1>에 대상자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⁸⁾

<표 1> 인터뷰 참여자

날짜	참여자	소속	직책	기록형태
2024년 4월 1일	A	국민의힘 최재형 후보	보좌진	녹음(전사본)
2024년 4월 1일	B	개혁신당	비례대표 후보	녹음(전사본)
2024년 4월 3일	C	더불어민주당 ○○○후보	보좌진	메모
2024년 4월 3일	D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의회	경기도의원	메모
2024년 4월 5일	E	새로운미래 진예찬 후보	핵심관계자	녹음(전사본)
2024년 4월 5일	F	새로운미래 진예찬 후보	사무원	녹음(전사본)
2024년 4월 8일	B	개혁신당	비례대표 후보	녹음(전사본)

6) Spradley, J. P., *Participant Observation*, Long Grove, IL: Waveland Press, 2016.

7) Tewksbury, D., “The role of comparison group size in the third-person effect”, *International Journal of Public Opinion Research*, vol. 14, no. 3, 2002, pp.247-263.

8) 민주당 광상언 후보 관계자에 대해서는 인터뷰를 실시하지 못하였다. 광 후보는 언론을 비롯한 모든 인터뷰에 대해 거절 의사를 밝혔다. 상세 이유는 후술한다.

II. 제3정당 논의와 한국의 제3정당

1. 제3정당에 대한 고찰

1) 제3정당의 의의

뒤베르제의 법칙에 따르면, 소선거구제는 양당체제를 가져오는 경향이 있으며, 비례대표제 또는 결선투표제는 다수 정당체제로 귀결된다.⁹⁾ 이 법칙 뿐만 아니라, 다수의 실증 연구를 통해서도 소선거구 제도 하에서는 제3정당 출현이 쉽지 않음이 입증된 바 있다.¹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제3정당의 존재는 유권자에게 다양한 정치적 선택지를 제공하는 등 선거과정 및 정당정치에서 적지 않은 역할을 하고 있다.

제3정당에 관한 연구는 소선거구제 하에서 양당체제가 일상화된 미국에서도 종종 연구되었다. 연구에 따르면 양당제가 약화되고 시민들이 양당을 떠날수록 제3정당이 성장하여, 양당의 반응성과 정치적 이해관계의 폭넓은 대표성을 촉진한다고 언급한다.¹¹⁾ 그리고 다른 연구에서는 제3정당을 양당 체제에 도전하는 대안적 존재로 설명하면서, 미국 정치에서 두 정당이 권력을 독점하며 정치적 경쟁을 억압하는 상황에서 제3정당이 정치적 다양성을 제공하고 독점을 견제하는 촉매제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다.¹²⁾

1992년과 1996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각각 무소속과 제3정당 후보로 출마한 로스 페로(Ross Perot)의 사례를 분석한 것에 따르면, 제3정당은 ‘메기 효과(catfish effect)’를 통해 양당이 새로운 이슈를 도입하고 주요 정책에 영향을 미치도록 유도하여 정당의 역동성과 반응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였다.¹³⁾ 페로는 주요 정당들이 소홀히 하기 쉬운 이슈를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기성 정치인 및 정당과의 차별화를 꾀했으며, 자신의 사업가 이미지를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강조하였다. 또한 유권자 참여 기반의 풀뿌리 조직을 전국

9) Duverger, M., *Political Parties: Their Organization and Activity in the Modern State*(B. North & R. North, Trans.), New York: Wiley, 1954.

10) Riker, W. H., "The two-party system and Duverger's law: An essay on the history of political scienc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76, no. 4, 1982, pp.753-766.

11) Rosenstone, S. J., Behr, R. L. and Lazarus, E. H., *Third Parties in America: Citizen Response to Major Party Failur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6.

12) Bennett, J. T., *Stifling Political Competition: How Government Has Rigged the System to Benefit Demopublicans and Exclude Third Parties*, New York: Springer, 2008.

Green, J. C. and Herrnson, P. S., *Multiparty Politics in America: Prospects and Performance*, Lanham, MD: Rowman & Littlefield, 2002.

13) Stone, W. J. and Rapoport, R. B., *Three's a Crowd: The Dynamic of Third Parties, Ross Perot, and Republican Resurgence*, Ann Arbor, MI: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2007.

적으로 구축하여 지지층을 확대하는 데 주력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페로는 1992년 대통령 선거에서 18.9%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이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제3정당 후보가 유의미한 득표율을 기록한 가장 최근의 사례로 기록되고 있다.

그러나 미국에서도 페로의 경우는 예외에 속하며, 대부분의 제3정당은 지속적으로 제약에 부딪히며, 큰 성과를 내지 못하였다. 미국 제3정당의 실패 원인 중 가장 큰 것은 제도적 장벽에 있었다. 관련 연구에 따르면 미국의 승자독식(winner-takes-all) 선거제도가 제3정당의 활동을 크게 제한하며, 이는 유권자들로 하여금 ‘사표 방지 심리’를 불러일으킨다고 설명한다.¹⁴⁾ 소선거구제는 유권자들이 승산이 있는 양대 정당 후보에게 표를 집중하게 만들면서 제3정당의 득표 가능성을 낮춘다. 또한 연방선거운동법(Federal Election Campaign Act)이 제3정당의 정치 자금 조달을 어렵게 만들어 그들의 활동을 위축시키는 주요 요인이 된다고 주장하였다.¹⁵⁾ 이 법이 정치 자금 분배에서 양대 정당에 유리하게 작용하면서 제3정당은 효과적인 선거운동을 펼치기 위한 재정적 자원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이로 인하여 제3정당이 제기한 이슈가 양대 정당에 의해 빠르게 흡수되는 경향을 지적하며, 이러한 현상이 제3정당의 영향력 확대를 가로막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라고 설명한다.¹⁶⁾ 이처럼 미국에서 제3정당이 성공을 거두지 못한 이유는 크게 제도적 요인과 양대 정당의 강력한 패권 구축이라는 점을 들 수 있다.

2) 한국의 제3정당에 대한 논의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에서 제3정당의 개념은 단순히 공화당과 민주당 이외의 정당으로 정의되며, 성장과정에 한계가 명확히 드러나는 특징을 보인다. 그러나 미국과는 달리, 한국에서는 역대 선거에서 제3정당이 일정 정도 꾸준히 역할을 해왔으며, 양당제와 다당제가 어느 정도 공존하고 있는 특징을 보인다. 그에 따라 한국에서도 제3정당을 학술적으로 규정하려는 논의가 적지 않게 이루어져 왔다.

한국에서도 제3정당과 관련한 다양한 연구가 존재한다. 일부 연구에서는 제3정당을 특정 귀속적 요인(인종, 종교, 언어, 지역 등)에 의해 지역적으로 밀집된 지지가 아닌, 지리적으로 분산된 지지를 받는 정당으로 정의한다.¹⁷⁾ 다른 연구에서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14) Green, J. C. and Herrnson, P. S., *Multiparty Politics in America: Prospects and Performance*, Lanham, MD: Rowman & Littlefield, 2002.

15) Bennett, J. T., *Stifling Political Competition: How Government Has Rigged the System to Benefit Democrats and Exclude Third Parties*, New York: Springer, 2008.

16) Stone, W. J. and Rapoport, R. B., *Three's a Crowd: The Dynamic of Third Parties, Ross Perot, and Republican Resurgence*, Ann Arbor, MI: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2007.

유력 후보의 주도로 출현한 신생정당으로, 지역주의 정당체제에 반대하는 새로운 정치세력으로 규정하기도 한다.¹⁸⁾ 이후 제3정당을 지역기반이 아닌 전국적인 지지를 받는 신생정당으로 보는 연구도 제시되었다.¹⁹⁾ 또한, 제3정당을 신생정당 중 총선에서 교섭단체 구성 요건인 20석 이상의 의석을 획득한 정당으로 규정한 연구도 존재한다.²⁰⁾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제3정당은 정치적 변화와 혁신을 요구하는 유권자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등장하며, 주요 정당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정치적 불만과 요구를 반영하는 새로운 정치세력으로 정의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제3정당의 조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특정 귀속적 요인에 의한 밀집된 지지가 아닌 전국적이고 보편적인 지지를 받는 정당. 둘째, 기존의 양당체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정당. 셋째, 대통령 후보를 당선시키거나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충족하는 의석수를 확보하는 정당으로 규정할 수 있다.

한국 총선에서 제3정당이 등장한 것은 제13대, 제14대, 제15대, 제20대였다. 한 연구에서는 제13대 총선의 통일민주당(김영삼 주도), 제14대 총선의 통일국민당(정주영 창당), 제15대 총선의 자유민주연합(김종필 주도)을 제3정당으로 규정하였으며, 그 이유로 원내 3위의 의석 수, 여당 및 제1야당에 대한 비토(veto) 역할, 지역주의 투표 행태를 들고 있다.²¹⁾ 그러나 이 연구는 제3정당의 정의를 단독 교섭단체 구성 여부에 한정하여, 제3정당을 “지리적으로 분산된 지지를 받는 정당”으로 정의한 기존 연구와 비교할 때 고려가 부족하다는 한계가 지적될 수 있다.²²⁾

특정 지역에서 밀집된 지지가 아닌 보편적 지지라는 측면에서 제17대 총선부터 본격적으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한 진보정당은 제3정당의 범주에 넣기에 충분하다. 기존의 진보정당에 관한 연구는 이를 제3정당과 구별된 독자적 카테고리로 다루고 있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제17대 총선에서 민주노동당(10석), 제20대 총선에서 정의당(6석)의 성과는 제3정당의 정의에 상당 부분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²³⁾ 민주노동당과 정의당은 각각 전

17) 강원택, “정치적 기대수준과 저항투표: 단순다수제 하에서 제3당에 대한 지지의 논리”, 『한국정치학회보』, 제32권 제2호, 1998, pp.191-210.

18) 지병근, “한국에서 제3정당의 실패요인: 새정치연합 사례 분석”, 『인문사회과학연구』, 제44호, 2014, pp. 63-94.

19) 지병근, “‘제3정당’에 대한 호남 유권자들의 선호와 투표결정: 호남지역의 정치발전에 대한 함의”, 『아세아연구』, 제59권 제4호, 2016, pp.44-78.

20) 김소정, 윤종빈, “한국 유권자의 제3정당 지지”, 『한국정당학회보』, 제18권 제2호, 2019, pp.29-66.

21) 김소정, 윤종빈, 앞의 논문, pp.29-66.

22) 강원택, “정치적 기대수준과 저항투표: 단순다수제 하에서 제3당에 대한 지지의 논리”, 『한국정치학회보』, 제32권 제2호, 1998, pp.191-210.

23) 제18대 총선에서 민주노동당은 5석, 제19대 총선에서 통합진보당은 13석을 얻으며 제3정당의 기반을 마

국적인 지지를 획득하였으며, 여당 및 제1야당과 차별화된 사회 진보적 아젠다를 제시하고, 교섭단체 구성을 목표로 삼는 등 제3정당의 특징을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

이후 제18대 총선과 제19대 총선에서는 자유선진당과 창조한국당이 제3정당을 표방했다.²⁴⁾ 하지만 자유선진당은 자민련의 후신으로서 지역주의 정당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고, 창조한국당은 당 대표인 문국현 의원의 의원직 상실 이후 소멸에 접어들어 제3정당으로 간주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반면, 제20대 총선에서 국민의당이 38석을 획득하며 약진한 것은 제3정당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촉발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신생정당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당이 돌풍을 일으킨 원인과 관련하여 다양한 분석이 제기되었다. 일부 연구에서는 국민의당의 주요 지지층이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에 불만을 가진 유권자들이며, 정당 일체감이 낮은 유권자들이 주로 이당을 지지했다고 밝히고 있다.²⁵⁾ 또한 거대 양당의 공천 갈등이 유권자들에게 부정적 인식을 심어주었고, 이로 인해 국민의당에 대한 지지가 상승했다고 설명된다.²⁶⁾ 또 다른 연구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복지 및 안보 정책에 실망한 유권자들이 국민의당의 “경제는 진보, 안보는 보수”라는 아젠다에 공감하여 새누리당을 대거 이탈하였으며, 국민의당이 이러한 아젠다를 통해 기존 새누리당 유권자들을 효과적으로 흡수하여 지지 기반을 확장할 수 있었다고 분석한다.²⁷⁾ 한편, 국민의당의 지지 상승 요인으로 당 대표의 리더십이 강조되기도 한다.²⁸⁾ 호남 지역의 절대적 지지가 국민의당의 성공 요인이라는 분석도 있다.²⁹⁾ 그러나 비례대표 투표에서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을 뛰어넘는 성과를 낸 것을 감안한다면, 국민의당에 대한 지지세는 전국적으로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제19대 대통령선거 이후 정국의 주도권은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에게 돌아가기 시작했고, 안철수 대표의 리더십도 흔들리기 시작했다.

련했다. 그러나 두 정당은 제1야당인 통합민주당·민주통합당과의 선거연대를 통해 의석을 확보해 양당체제에 대항하기보다는 편승하는 양상을 보였다. 따라서 이들 진보정당은 제3정당 논의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는 제22대 총선에서 민주당과 선거연대 및 위성정당 편입을 추진한 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을 제3정당으로 보지 않는 이유와도 같다.

24) “선진 ‘줄타기 행보’ 딜레마”, 『연합뉴스』, 2009년 7월 5일.

25) 장승진, “제20대 총선의 투표선택: 회고적 투표와 세 가지 심판론”, 『한국정치학회보』, 제50권 제4호, 2016, pp.151-169.

26) 장승진, 앞의 논문, pp.151-169.

27) 주민혜, “국민의당 투표자 분석: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이탈자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제44권 제2호, 2018, pp.249-2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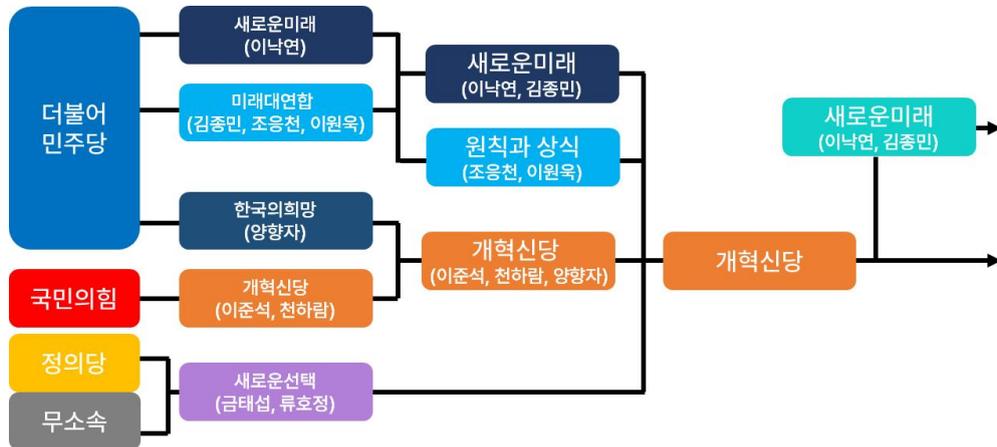
28) 류재성, “분할투표의 유형 및 동기: 20대 총선 분석”, 『한국정당학회보』, 제19권 제1호, 2020, pp.59-95.

29) 김정훈, 한상익, “신화의 붕괴, 그리고 희망의 정치?: 20대 총선에서 나타난 유권자 지형의 변화”, 『경제와사회』, 제110호, 2016, pp.12-37.

이후 국민의당은 구성원 간 내분과 저조한 지지율로 인해 공중분해에 가까운 결과를 맞이하고 말았다.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안철수 대표는 소수의 당직자를 이끌고 국민의당을 재창당하였으나, 3석이라는 초라한 성적을 내는 데 그쳤다. 제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는 윤석열 후보와 단일화를 결정하며 국민의힘과 합당하였다. 국민의당은 양당에 대한 심판과 대안을 제시하며 일단 유권자의 지지를 얻었으나, 자생력에 대한 의문을 남기며 결국 소멸에 이르고 말았다.

국민의당의 실패와 관련한 연구는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³⁰⁾ 제21대 총선에서 국민의당 지지 유권자를 분석하며, 그 쇠락의 원인으로 다음과 같은 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정책적 명확성의 부족이다. 안철수 대표는 “경제는 진보, 안보는 보수”라는 아젠다로 일단 유권자의 지지를 얻었으나, 선거 과정에서 이념적으로 일관성이 부족하여 지지 형성이 어려웠다. 둘째, 항의 투표의 한계이다. 국민의당 지지자는 양당체제에 불만을 가진 유권자들로, 항의 투표 특성상 일시적인 지지에 머물고 말았다. 셋째, 정치적 기회의 부족이다. 제21대 총선은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치러져 신생정당이 유권자에게 정책을 홍보하기가 대단히 어려웠다. 넷째, 인적 자원의 부족이다. 국민의당은 비례대표 후보자만 공천했을 뿐, 지역구 후보자를 내지 못하여 지역적 기반 마련에 실패하였다.

2. 제22대 총선의 제3정당



〈그림 1〉 제22대 총선 전 제3정당 움직임

30) 김도훈, 강원택, “2020년 국회의원선거 분석: 누가 왜 국민의당에 투표했는가?”, 『한국정치연구』, 제31권 제1호, 2022, pp.59-84.

제3정당 형성을 위한 노력은 제22대 총선을 앞두고도 계속되었다. 이른바 ‘제3지대’ 논의였다. 이 시기에 벌어진 제3지대 논의는 제20대 총선의 그것과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기존의 제3정당 논의가 ‘안철수 중심’의 특정 정치세력의 분화에 가까웠다면,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이루어진 논의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거대 양당의 분화된 세력뿐만 아니라 정의당을 비롯한 다양한 정치세력이 제3지대 논의에 참여하였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였다.

민주당의 분화는 이재명 일극 체제에 대한 반발이 주된 원인이었다. 제20대 대선 과정에서 당내 후보 선출을 둘러싸고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후보 간의 대립이 격화되면서, 대선 이후에도 민주당 내 친명과 비명 간 갈등이 발생하였다. 마침내 이낙연 전 총리와 그의 지지 세력은 민주당을 탈당하여 ‘새로운미래’를 창당하였다.³¹⁾

민주당 내 비명계의 또 다른 그룹으로서, 조웅천·이원욱·김종민 의원이 주도하였던 ‘원칙과상식’도 선거를 앞두고 탈당하였다. 이 모임은 당초 ‘새로운미래’에 합류할 계획이었으나, 내부 의견 충돌로 독자 노선을 걷게 되었다.³²⁾³³⁾

국민의힘의 세력 분화는 이준석 전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 간의 갈등에서 비롯되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국민의힘 입당 이후 두 사람의 갈등은 지속되었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 후 이준석 대표는 자신의 성 접대 의혹이 제기되며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징계를 받았다.³⁴⁾ 결국 이준석 전 대표는 총선을 앞두고 탈당하고, ‘개혁신당’을 창당하였다. 개혁신당은 민주당을 탈당한 양향자 의원이 주도한 ‘한국의희망’과 합당하여 당세를 확장하였다.³⁵⁾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세력 분화는 일극체제에 대한 저항적 성격을 띠고 있으나, 정의당의 분화는 다른 양태를 보인다. 제21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1, 2번으로 당선된 류호정, 장혜영 의원이 주도한 ‘새로운 권력’은 기존 정의당의 운동권적 행태를 비판하며 정의당 내 독자적 의견그룹으로 존재해왔다.³⁶⁾ 총선을 앞두고는 제3지대와의 연대를 주장하며, 류호정 의원은 금태섭 전 의원이 주도하는 ‘새로운선택’에 참여하였다.³⁷⁾

그 결과 2024년 1월 말 기준으로 제3지대는 민주당에서 탈당한 이낙연 계의 ‘새로운미래’, 조웅천·이원욱 의원이 이끄는 ‘원칙과상식’, 국민의힘에서 탈당한 이준석 계와 양

31) “이낙연, 11일 국회서 탈당 기자회견...신당 창당 공식화”, 『뉴시스』, 2024년 1월 8일.

32) 최종적으로 김종민 의원은 ‘새로운미래’에 합류했다.

33) “민주당 탈당파 ‘새로운미래’ 창당...이원욱·조웅천은 이탈(종합)”, 『연합뉴스』, 2024년 2월 4일.

34) “국민의힘 윤리위, 이준석 대표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 결정”, 『KBS뉴스』, 2022년 7월 8일.

35) “개혁신당·새로운미래·새로운선택? ... 제3지대 신당, 도대체 뭐지”, 『경향신문』, 2024년 2월 11일.

36) “류호정·장혜영과 함께... 조성주 ‘이제 6411버스서 내릴 시간’”, 『오마이뉴스』, 2022년 9월 26일.

37) 장혜영 의원은 최종적으로 탈당에 반대하며 정의당에 잔류하였다. 류호정 의원은 탈당할 경우 비례대표 의원직을 상실하기 때문에, 탈당은 총선이 임박한 2024년 1월에서야 이루어졌다.

향자 의원의 ‘개혁신당’, 정의당에서 탈당한 류호정 의원과 금태섭 전 의원의 ‘새로운선택’의 네 정당으로 재편되었다. 그러나 총선을 앞두고도 제3지대 정당의 지지율은 답보 상태에 머물렀으며, 제3지대 정당 간 합당을 통해 ‘빅텐트’를 형성하자는 논의가 지속되었다.³⁸⁾

2월 8일, 제3지대 네 세력은 합당을 선언하고, 당명은 ‘개혁신당’, 당 대표는 이준석과 이낙연이 공동으로 맡기로 하였다. 그러나 당 운영 과정에서 구성된 간 갈등이 불거졌고,³⁹⁾ 이낙연 측은 중대발표를 통해 개혁신당과의 합당을 파기하고 독자 세력을 구축할 것을 선언하였다.⁴⁰⁾ 결국 제22대 총선 과정에서 제3지대 논의는 이준석 중심의 ‘개혁신당’과 이낙연 중심의 ‘새로운미래’로 정리되었다.⁴¹⁾

Ⅲ. 제22대 총선 서울시 종로구의 제3정당 후보와 선거구 특성

1. 종로구의 제3정당 후보

제22대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제3정당으로는 제3지대의 두 정당과 정의당과 녹색당이 선거연합 정당으로 구성된 녹색정의당이 있었다. 본 연구의 대상 지역인 종로구에는 녹색정의당에서는 후보를 내지 않았고, 제3정당 후보로는 새로운미래의 진예찬 후보와 개혁신당의 금태섭 후보가 출마하였다.

그런데 제3정당 후보의 활동 사례로서는 개혁신당 금태섭 후보만을 들기로 한다. 새로운미래 진예찬 후보를 연구에서 제외한 이유는 정치적 위치의 모호성 때문이다. 진 후보는 선거과정에서 “양당정치 심판”과 “다당제 정치의 필요성”을 주장했으나, 새로운미래 구성원들은 당을 제3정당이 아닌 ‘진짜 민주당’ 혹은 ‘민주당의 적통’으로 인식하는 경향을 보였다. 언론 보도와 비례대표 공보물에서도 새로운미래는 민주당 출신 전직 대통령인 김대중과 노무현의 이미지를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다.⁴²⁾ 당원들의 인식 또한 이러한 정체성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⁴³⁾

38) “합쳐도 6%인 이준석·이낙연 신당...제3지대 동력 위기[數싸움]”, 『헤럴드경제』, 2024년 2월 4일.

39) “우리가 주류” “이준석 몽니”...개혁신당 주도권 쟁탈전 시작되나”, 『연합뉴스』, 2024년 2월 16일.

40) “이낙연, 이준석과 결별 수순...‘새로운미래’로 독자 행보”, 『한국경제』, 2024년 2월 19일.

41) “이준석 개혁신당, 공천관리위원장에 김종인 선임”, 『조선일보』, 2024년 2월 23일.

42) “‘탈당’ 설훈·홍영표 새로운미래 합류...‘진짜 민주당’”, 『연합뉴스TV』, 2024년 3월 7일.

43) 실제로 제20대 총선이 끝난 후 새로운미래는 2024년 9월, 당명을 ‘새미래민주당’으로 변경하고, 민주당을 대체하는 정당임을 자인했다.

문제인-이낙연으로 이어져 오는, 스스로를 문과라고 하는데, 이낙연 대표를 옹호하고 이 재명을 싫어하는 그런 당원들이 사실은 민주당 당원들이죠. 그 당원들이 나와서 간절한 마음으로 더 잘 되길 바라는 분들이 많습니다(참여자 E, 2024.4.5.).

이와 같은 구성원들의 태도는 새로운미래가 기존 제1야당의 자리를 대체하려는 정당으로 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종로구의 개혁신당 금태섭 후보를 중심으로 제3정당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고자 한다.

2. 종로구의 정치적 특성

종로에는 변호사나 공인회계사 등 전문 지식인이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 대학 교수만 2,000여 명이었다. 평창동, 창신동, 동대문시장 등 사회적 공간도 매우 다양하고 입체적이었다. 종로구를 잘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면 국가를 운영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⁴⁴⁾

‘정치 1번지’로 불리는 종로는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닌 지역이다. 조선시대부터 주요 궁궐과 관청이 위치했으며, 현대에는 대통령 집무실이 있던 청와대, 정부서울청사, 헌법재판소, 감사원 등 주요 공관과 관공서가 자리하고 있어 정치적·사회적 위상이 높다. 이러한 특수성에 걸맞게 종로구는 영향력 있는 정치인을 다수 배출해 왔다. 윤보선, 노무현, 이명박 등 대통령 3명을 비롯해 정세균, 이낙연 등 국무총리, 그리고 이종찬, 박진, 최재형 등 장관급 정치인들이 종로구에서 활동한 경력을 갖고 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종로구는 총선에서 가장 많은 후보가 출마하는 지역 중 하나로 꼽힌다⁴⁵⁾. 대체로 종로 지역 유권자들은 정치적으로 높은 식견을 지니고 있으며, 지역 이슈보다 전국적 이슈에 더 큰 관심을 보였다. 또한 “똥 사람을 밀어준다”는 승자편승 효과(bandwagon effect)가 우세한 경향을 보였다. 종로구는 다수 후보가 출마하지만, 역설적으로 양대 정당 후보를 제외한 제3정당 후보가 10% 이상의 득표를 기록한 경우가 거의 없었다. 이러한 점은 이번 인터뷰 과정에서도 드러났다.

정치 1번지라고 하잖아요. 유권자 수준이 되게 간간해요. 보니까 그게 어떤 의미인지 알겠더라고요. (중략) 3지대 후보가 10% 이상인 걸 얻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노무현 대통

44) 노무현, 『운명이다』, 파주: 돌베개, 2010.

45) 제22대 총선의 지역구 평균 출마자는 2.7명이나, 종로구의 출마자는 7명으로 가장 많았다. 제21대 총선 또한 지역구 평균 출마자 4.4명에 비해, 종로구의 출마자는 11명으로 가장 많았다.

령이 국회의원을 했던 게 종로였고 이명박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했던 게 종로여서 큰 정치인들을 키우는 종로였단 말이에요. 아마도 유권자들 인식에는 어떤 그러니까 일종의 될 사람을 밀어주자...(참여자 B, 2024.4.1.)

정치적 특성은 기본적으로 워낙 큰 인물들을 많이 봤어요. 여기 살고 계신 주민들이 정치적 식견이 굉장히 높아요. 그 사람이 대통령 하던 사람들을 보니까 이게 종로에서 찍어야 큰 인물이 되고 이런 것도 있지만, 워낙 큰 인물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이해가 굉장히 높으세요. 사실 좀 후보 입장에서서는 부담스러울 정도로 잘 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치에 대해서 원하시는 것도 많고 그분들이 원하는 거에 맞추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자질이나 능력 수준이 좀 높은 편이에요. 유권자들의 니즈 뭐랄까 유권자들이 식견이 높다는 거죠(참여자 A, 2024.4.1.).

〈표 2〉 종로구 최근 국회의원선거 결과

(단위: %)

제20대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진리대한당	한나라당	무소속	무소속	
	오세훈	정세균	박태순	윤공규	김한울	하승수	이석인	박종구	김대한	이원옥	
	39.72	52.6	5.6	0.54	0.41	0.69	0.07	0.06	0.14	0.11	
제21대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우리공화당	민중당	평화인권당	공화당	국가혁명당	국민새정당	민중민주당	한나라당	무소속
	이낙연	황교안	한민호	오인환	이정희	신동욱	박준영	백병찬	박소현	김형석	김용덕
	58.38	39.97	0.44	0.29	0.14	0.06	0.2	0.06	0.06	0.07	0.27
3.9보궐	국민의힘	정의당	시대전환	국민혁명당	독도한국당	새로운물결	통일한국당	무소속	무소속	무소속	
	최재형	배복주	김도연	구본철	김두환	송문희	윤대관	서주원	박종구	김영종	
	52.09	15.32	0.88	0.5	0.3	0.56	0.11	1.2	0.57	28.41	
제22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새로운미래	개혁신당	가락특권폐지당	대한국민당	민중민주당				
	곽상연	최재형	진예찬	금태섭	김준수	김종갑	차은정				
	50.92	44.13	1.22	3.22	0.06	0.09	0.33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http://info.nec.go.kr/>)

〈표 2〉에서 확인되듯, 최근 5차례의 국회의원선거에서는 민주당의 우세가 두드러졌다. 제19대부터 제22대까지 이낙연 의원의 사퇴로 치러진 3.9 보궐선거를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민주당 후보가 승리했다. 반면 〈표 3〉에 따르면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최근 대통령 및 지방선거에서는 국민의힘이 우세하였다. 이는 종로구가 특정 정당이 일방적으로 우세하지 않은, 양대 정당이 승패를 주고받는 ‘스윙보터(swing voter)’ 지역임을 보여준다.

〈표 3〉 종로구 주요 선거 결과

(단위: %)

○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더불어 민주당	국민의힘	기본소득당	국가혁명당	미래당	민생당	신자민련	여성의당	진보당	무소속	무소속	무소속	
박영선	오세훈	신지혜	허경영	오테양	이수봉	배영규	김진아	송명숙	정동희	이도엽	신지예	
41.26	55.24	0.58	1.04	0.2	0.22	0.01	0.62	0.22	0.03	0.03	0.5	
○ 제20대 대통령선거 득표율												
더불어 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기본소득당	국가혁명당	노동당	새누리당	신자민련	우리공화당	진보당	통일한국당	한류연합당	
이재명	윤석열	심상정	오준호	허경영	이백윤	옥은호	김경재	조원진	김재연	이경희	김민찬	
46.42	49.48	3.13	0.05	0.56	0.04	0	0.05	0.08	0.1	0.02	0.03	
○ 제8대 전국동시지방선거 종로구청장 득표율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코리아당			무소속		
유찬종			정문현				류승구			고남철		
47.09			51.49				0.16			1.24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http://info.nec.go.kr/>)

종로구 선거에서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특징은 지역별로 진보-보수의 지지가 뚜렷하다는 점이다.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대부분 지역에서 승리했지만, 창신·승인동 같은 서민 주거지에서는 패배했다. 반대로 제22대 총선에서 민주당 곽상언 후보는 다수 지역에서 우세했으나, 평창·부암·사직동 등 전통적 부촌에서는 열세였다. 종로구의 경우, 종묘를 기준으로 서쪽은 보수 계열 정당, 동쪽은 진보 계열 정당의 우세로 뚜렷하게 나뉜다.

요약하자면 종로구의 정치적 특성은 첫째, 높은 정치적 위상으로 인해 그에 맞는 유명 정치인의 출마지역으로 선호되는 지역. 둘째, 높은 정치적 의식을 가진 유권자가 다수 존재하는 지역. 셋째, 당선 가능성이 높은 후보를 지지하는 승자편승 투표행태가 나타나는 지역. 넷째, 특정 정치세력이 절대적 우위를 점하지 않는 스윙보터 지역. 다섯째, 지역별로 정당 지지가 명확하게 나뉘는 지역 등으로 설명될 수 있다.

3. 개혁신당 금태섭 후보

금태섭 후보는 검사 출신 정치인으로, 2012년 안철수 대선 캠프에 참여하면서 정치에 입문했다. 이후 안철수가 대표로 있던 정당이 당시 제1야당이었던 새정치민주연합과 합당함으로써 새정치민주연합의 일원이 되었다. 2016년 제20대 총선에서는 민주당 공천을

받아 서울 강서구 갑 지역구에 출마해 당선되었다. 2019년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에 반대 의견을 표출하며 민주당 주류와 거리를 두게 되었고, 이는 그가 ‘원칙과 소신’을 지닌 정치인으로서 인식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소신 행동은 일반 국민으로부터는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 반면, 당내에서의 설자리는 점점 좁게만 만들었다. 민주당 지지층으로부터는 ‘배반자’라는 비판이 확산되었고, 제21대 총선을 앞두고는 당내 경선에서마저 패배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민주당 지도부는 당론에 반대한 책임을 물어 그에게 징계를 의결하였고, 결국 그는 탈당하였다. 이후 무소속으로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준비했으나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단일화에 합의함으로써 중도하차했다. 안 대표는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와 추가 단일화를 거쳐 오 후보가 야권 단일 후보로 서울시장에 출마하게 되었다.⁴⁶⁾ 금태섭 후보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대선 캠프에 참여하는 등 정치활동을 이어갔지만, 제22대 총선에서는 제3지대 창당을 주도하며 국민의힘 입당에는 거리를 두었다.

2023년 9월 그는 ‘새로운선택’을 창당하고, 같은 해 12월 정의당 내 ‘세번째 권력’과 합당을 이루어냈다. 2024년 2월, 종로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진보의 촛불과 보수의 태극기를 모두 품은 곳이 종로”라며, “제3지대 통합을 가속화하기 위해 결단을 내렸다”고 밝혔다.⁴⁷⁾ 이후 새로운선택은 개혁신당과 통합했고, 그는 개혁신당 최고위원이자 종로구 국회의원 후보로 공천되었다.

한편 금 후보가 출마 의사를 밝히기 전부터 종로를 둘러싼 거대 양대 정당의 경쟁은 치열하였다. 민주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 곽상언 변호사(종로구 지역위원장)가 출마를 준비하는 가운데,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이종걸 전 의원 등이 출마를 선언했다. 국민의힘에서는 현역 최재형 의원이 재선에 도전하고, 해운대갑 지역구의 하태경 의원이 수도권 혐지 출마 명분으로 종로 출마를 선언한 상황이었다. 종로의 특성상 양당에서는 이들 인물 외에도 거물급 정치인들이 후보로 물망에 올랐으나,⁴⁸⁾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최종적으로 각각 곽상언 변호사와 최재형 의원을 후보자로 공천하였다.

46) “금태섭 ‘국민의힘 입당, 변화에 기여한 뒤 할 것...노재승 입장표명 있어야’”, 『뉴스핌』, 2021년 12월 9일.

47) “새로운선택 금태섭, 종로 출마...“촛불과 태극기 모두 품은 곳””, 『연합뉴스』, 2024년 2월 6일.

48) “[총선핫플] 정치1번지 종로 하마평 무성, 국힘 하태경·민주 곽상언 출사표”, 『비즈니스포스트』, 2023년 12월 13일.

IV. 제3정당 후보의 선거과정과 한계

1. 선거 공약

제3정당 후보인 금태섭 후보의 공약을 분석하기 위해, 그의 공보물과 함께 집중 유세, 언론 인터뷰, SNS 게시물을 참조하였다. 아울러 곽상언 후보의 공약을 비교적 시각에서 살펴보기 위해 양당 후보인 곽상언, 최재형 후보의 공약도 검토하였다.

금태섭 후보는 ‘원칙과 소신의 정치인’이라는 이미지를 강조하면서 정치 개혁의 필요성을 일관되게 주장하였다. 공보물 표지에는 국회의원 시절 조국 법무부 장관 청문회에서 비판적 발언을 한 장면이 사용되었으며, 주요 메시지로 “종로가 금태섭을 살려야 한다”는 구호와 함께 개혁적인 이미지를 강조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이를 통해 금 후보는 기존 양당 체제를 비판하고, 정치개혁을 요구하는 강력한 이미지를 구축하려고 하였다.

하지만 이와 같은 정치적 이미지 형성 전략과는 달리, 구체적인 공약 제시 측면에서 금 후보는 곽상언 및 최재형 후보에 비해 절대적으로 미흡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 세 후보들의 주요 공약은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이 표를 얼핏 봐도 알 수 있듯이 금 후보는 두 거대 정당 후보에 비해 공약 제시 양에 있어 많이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내용적으로도 상당히 미흡한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 측면에서 금 후보는 다른 후보들과 비교해 뚜렷한 한계를 드러냈다. 곽 후보가 “오르막 경사도로 열선 설치”, “전세보증금 보험 지원”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제시하고, 최 후보가 “GTX-E 노선 신속 추진”과 “전통시장 주차장 확보” 같은 실질적 계획을 내놓은 것과 달리, 금 후보는 “창신·승인 재개발 업그레이드”, “5분 콜 버스” 등 추상적인 수준의 공약을 제시하는 데 그쳤다.

둘째, 지역 맞춤형 공약의 부재가 두드러진다. 곽 후보는 “한옥 보존 세제 강화”나 “종로형 전통시장 어플리케이션 개발” 등 종로 지역의 특성을 살린 정책을 제안하고, 최 후보도 “역사문화벨트 구축”과 “전통시장 현대화” 같은 동별 밀착형 공약을 제시하였다. 이와 대조적으로 금 후보는 재건축 관련 공약을 제외하면, 종로라는 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것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였다.

셋째, 세대별 포괄적 접근이 부족하였다는 점이다. 곽 후보는 “어르신 주치의제도”와 “청년난립(LAB)”을 통해 노년층과 청년층을 아우르는 균형 잡힌 공약을 제시했고, 최 후보 역시 “보훈대상자 복지 확대”와 “청소년수련관 건립”으로 다양한 계층을 고려한 정책을 강조했다. 반면 금 후보는 주로 청년 계층에 국한된 공약에 집중하여 정책의 포괄성을

이 떨어졌다.

넷째, 복지 및 교육 정책에 있어 구체성 부족이 약점으로 드러난다. 광 후보가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은 동네 초등 돌봄 프로젝트” 등 세부적인 복지 공약을, 최 후보가 “초등학생 학습지원비 지급”과 “청소년수련관 건립” 등으로 구체적인 교육 공약을 제시한 것과 비교해, 금 후보의 “3·3·4 육아휴직 보장제”와 “학원 준공영제”는 보다 거시적인 측면의 정책으로, 그 실행 방안과 기대효과가 모호한 측면이 있었다.

종합하면, 금 후보는 공약의 구체성과 실행 가능성, 지역 맞춤형 정책, 계층별 포괄성, 그리고 복지·교육 분야의 세부 계획 측면에서 다른 두 후보에 비해 현격한 차이를 보였다. 공약 전반에 걸쳐 보인 이와 같은 완성도 부족은 유권자들에게 정책적으로 어필하는데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었다.

〈표 4〉 후보자 공약사항 비교

구분	곽상언	최재형	금태섭
주거	- 주민친화적 주거환경 개선 - 층수 완화(3층→4층) - 전세보증금 보험 지원 - 한옥 보존 세제 강화	- ‘뉴:빌리지’ 사업 도입 -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 자연경관지구 고도제한 완화 - 노후 단독주택 재정비 지원	- 창신·승인 재개발 - 일부 직주 근접 주거단지 공급
경제	-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 지역화폐 발행 확대 - 주얼리·봉제 특화산업 입법 추진 - 종로형 전통시장 어플리케이션 개발	- 전통시장 현대화 - 봉제인 쉽터 조성 - 국가장학금 수혜 확대 - 전통시장 주차장 확보	- 공실 제공을 통한 청년 창업 지원 - 소득기반 사회보험 도입
교통	- 강북횡단선 조기 착공 - GTX-E 노선 평창역 추진 - 지하주차장 건립	- GTX-E, 신분당선, 강북횡단선 사업 신속 추진 - 서울 내부순환 급행철도망 구축	- 15인승 미니버스, 5분 콜버스
복지	-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 경로당 주 5일 점심 제공 - 동별 어르신 주치의제도	- 보훈대상자 복지 확대 - 장애인 쉽터 조성 - 청운효자동 테이케어센터 리모델링	- 육아휴직 보장제(3·3·4) - 기초연금 일부 추가 지급
교육	- 은 동네 초등 돌봄 프로젝트 -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 평생교육 활성화	- 초등 학습지원비 지급 - 다목적 청소년수련관 건립 - 어린이집 생애 첫 입학 축하금 지급	- 대학 캠퍼스 담장 허물기 - 학원 준공영제
문화	- 송현동 숲·문화공원 추진 - 대학로 문화지구 활성화 - 탑골공원 재정비 - 시립 복합공영장 건립	- K-문화 콘텐츠 역사관광벨트 구축 - 전통시장 현대화 - 책세장 공영화 사업	- 창신골목시장 현대화 - 문화재 발굴 비용 정부 지원

출처: 후보자 공보물 및 각종 SNS 게시물 등 참고

그렇다면 금 후보의 공약은 왜 양당 후보에 비해 미흡할 수밖에 없었는가? 무엇보다 지역 조직의 부재를 가장 큰 이유로 꼽을 수 있다. 개혁신당 비례대표 후보와의 인터뷰에 따르면(참여자 B, 2024.4.8.), 금 후보 측은 공약 수립에 있어 지방의원이나 지역 인사들과의 협력 없이 캠프 내 정책 전문가들이 종로구와 유사한 지역의 공약을 참고해 설계했다고 밝혔다. 반면 양당 후보는 공약 설계 과정에서 지방의원을 비롯한 지역 내 여러 인사들이 참여하였으며, 이들을 통해 지역 현안을 깊이 이해할 수 있었다(참여자 D, 2024.4.3.). 지역에서 활동하는 인물의 확보 부족은 금 후보가 지역 맞춤형 공약을 개발하는 데 근본적인 한계를 보인 이유가 되었다.

금 후보는 중앙당 차원의 정책지원도 기대하기 어려웠다. 양당 후보들은 중앙당이 발표한 공통 공약을 지역 상황에 맞춰 활용하기도 하였다. 특히 민주당은 정책연구원의 전문성을 통해 총선 후보들에게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지원을 제공하며, 후보자들의 지역 기반 공약을 뒷받침하기 위해 힘썼다.⁴⁹⁾ 반면 개혁신당은 소수정당이자 신생정당으로서 거대 양당에 비해 인적·물적 자원이 현저히 부족하였다. 금 후보의 지역 공약 수립은 자신의 정치적 비전과 아이디어에만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게 되었고, 이러한 점이 지역에 적합한 정책을 개발하는데 한계점으로 작용했다.

금 후보는 후보자 초청 TV 토론회에 초대받지 못해 공약을 평가받을 기회마저 얻지 못했다. TV 토론회는 유권자가 후보의 입장과 공약의 세부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일 뿐만 아니라, 후보자 입장에서는 진영 간의 공약을 비교하고, 새로운 공약을 개발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현행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르면, 국회의원 선거 토론회에 참여할 수 있기 위해서는 5명 이상 국회의원을 보유한 정당이거나, 직전 대선·총선 비례대표·지선 비례대표에서 3% 이상을 득표한 정당 또는 언론기관이 실시한 여론조사 지지율이 5% 이상인 후보자여야 했다(공직선거법 제82조의2). 금 후보는 신생·소수정당 후보로서 이들 조건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았다. 결국 금 후보는 TV토론을 통해 자신의 공약을 검증하고, 수정할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

2. 선거 운동

금 후보는 이번 선거에서 종로구의 지역 특성에 맞춘 선거운동을 통해 제3정당의 존재감을 알리고자 했다. 후보 캠프는 사전 여론조사를 통해 종로구의 정치적 성향과 사회경제적 특성에 맞는 대응 방안을 마련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금 후보는 당초 유권자와의

49) “민주연구원, ‘거대 야당’ 정책 드라이브 밀거름 되다”, 『매일신문』, 2024년 6월 27일.

소통에 주력하면서 유권자들에게 직접 지지를 호소하는 전략을 폈다.

더불어 금 후보는 거대 양당체제를 극복하려는 정치개혁의 필요성을 선거운동의 핵심 메시지로 삼았다. 그는 다양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 주요 정치인들과 현재 정치 구조를 비판하며 양당체제의 문제점을 강조했다. 개혁신당이 양당체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정당임을 부각하려 했으며, ‘정치 1번지’로 불리는 종로구에서의 출마가 이러한 정치 개혁의 필요성을 상징적으로 드러낸다고 주장하였다. 금 후보는 이러한 방식으로 제3정당의 존재감을 높이고, 유권자들에게 양당에 대한 대안을 제공하는 정치인으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하고자 했다.

그러나 금 후보의 선거운동은 당초 기대와는 달리 여러 가지 한계가 드러났으며, 그 대부분은 후보 개인의 역량보다는 제3정당 후보로서 초래되는 것이었다. 먼저 현실적 정책과 구체적인 로드맵의 부재가 주요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그는 양당체제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정치개혁을 주장했지만, 구체적으로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이나 전략적 로드맵을 충분히 제시하지 못했다. 즉 유권자들이 정치개혁이라는 거시적 비전에 공감했을지라도, 이를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낼지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부족하였다.

유권자와의 정서적 접점 부족 또한 선거운동의 한계로 지적할 수 있다. 곽 후보는 장인인 노무현 전 대통령을 강조하며 정서적 메시지를 통해 유권자와의 연결을 시도했다. 최 후보도 본인의 오랜 기간에 걸친 종로구 연고를 강조할 뿐만 아니라, 현직 국회의원으로서의 성과와 풍부한 경험을 부각시키는 전략으로 종로구민의 지지를 호소했다. 반면 금 후보는 양당체제를 극복하려는 정치개혁을 주된 메시지로 내세웠지만, 종로구민과의 정서적 연결을 유도하는 메시지는 상대적으로 약했다.

신생 제3정당으로서 개혁신당의 지역조직 부재도 선거운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다. 양당 후보들은 지방의원과 당원 조직을 통해 일반 유권자와의 접점을 넓히고, 다양한 행사와 활동에도 참여 등 지역조직을 통한 선거운동이 가능하였다(참여자 C, 2024.4.3.; 참여자 D, 2024.4.3.). 반면 개혁신당은 지역 내 네트워크가 전무하다시피하여, 각종 행사에 대한 정보가 부족했다(참여자 B, 2024.4.8.). 더욱이 선거운동원 모집도, 양당 후보의 경우 지역 당원 등을 활용할 수 있었지만, 금 후보 측은 선거운동원으로서 지인을 동원하는 수밖에 없었다. 이로 인해 당초 목표였던 유권자와의 직접적인 소통은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대신에 금 후보는 활발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 유권자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간접적인 방식에 의존하였다. 하지만 미디어를 이용하는 공중전으로는 맨투맨(man to man) 식의 지상전을 이기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늦은 기호 확정과 지역구 획정의 지연도 금 후보의 선거운동 전략 수립에 큰 장애물로

작용했다(참여자 B, 2024.4.8.). 공직선거법에서는 총선에 입후보하는 정당들의 전국 통일 기호를 ① 5명 이상 지역구 국회의원을 보유한 정당, ② 직전 대선·총선 비례대표·지역 비례대표에서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을 기준으로 부여한다(공직선거법 제150조). 이에 따라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기호 1번과 2번을 일찌감치 확보하여 선거운동 초반부터 유권자들에게 자기 정당의 기호를 각인시킬 수 있었다. 반면 제3정당은, 거대 정당들의 위성정당 창당과 제3지대에 참여하는 정치 세력 간의 이합집산 등으로 인해, 후보자 등록 마감일까지 기호를 확정하지 못했다. 따라서 금 후보는 최대 90일 간의 예비후보 등록 기간 동안에는 기호를 활용한 선거운동을 전혀 할 수 없었고, 자연스럽게 유권자들에게 정당의 정체성을 명확히 인식시키는데도 애를 먹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일 일 년 전까지 지역구를 확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공직선거법 제24조의2 제1항).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선거에서는 선거일 41일 전인 2024년 2월 29일에야 지역구가 확정되었다. 지역구 획정의 지연은 이번 선거에서뿐만 아니라, 매 총선에서 되풀이되고 있다. 특히 이번 종로구의 경우, 최종적으로는 선거구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선거구 확정 논의 과정에서는 인근 자치단체인 중구와 통·폐합이 논의되는 등의 진통이 있었다. 선거구 획정의 지연은 도전자이고, 더욱이 중앙당으로부터 별다른 지원을 기대할 수 없는 소수정당 후보의 입장에서는 선거 전략을 수립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을 개발하는 데 큰 장애로 작용하였다.

앞에서 언급한 중앙당의 지원 부족 또한 선거운동의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유세 장면에서 주로 목격되었다. 양당 후보들은 유명 정치인과 연예인의 지원 유세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금 후보는 이재명 대표, 김부겸·정세균 전 총리 등을, 최 후보는 한동훈 비대위위원장과 김을동 전 의원 등 유명 정치인과 연예인을 대거 동원했다. 그러나 금 후보의 집중유세에서는 김종인 개혁신당 공천관리위원장과 비례대표 후보들이 한 번 참석한 것을 제외하고는 별도의 이벤트성 행사가 없었다. 이준석 대표나 조웅천 의원 등의 당내 주요 인사의 지원도 없었다.⁵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 후보 측은 투표일 전날까지 선거 운동을 진지하게 이어나갔다. 출마 자체 또는 비례대표 후보의 득표율을 올리기 위한 페이스 메이킹(pace making)이 목적이 아니냐는 일부의 시선도 있었지만, 후보 측은 어디까지나 당선을 목표로 하고 있

50) 다만 이 점은 선거 후반으로 갈수록 이준석 대표의 지역구 당선이 가시화되면서, 개혁신당의 당력을 화성(동탄)에 집중할 수 밖에 없는 현실적 이유가 있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실제로 다른 정당이 최종 집중유세를 용산역(민주당), 청계광장(국민의힘) 등 서울 지역에서 진행한 것과 달리, 개혁신당은 이준석 대표의 지역구인 화성 청계공원에서 최종유세를 진행했다.

“마누라가 이준석 찍으라고...막판 총력전 나선 개혁신당”, 『한국경제』, 2024년 4월 9일.

음을 분명히 했다.

(출마에 의미를 두거나 비례대표 득표율을 올리는) 그런 의미는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런 후보는 제가 볼 때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사실 냉정한 현실 세계에서는 그렇게 선당후사(先黨後私)하는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큰 갑부가 아닌 이상은 몇 달에 몇 억씩 돈이 깨지는 일인데, 당의 비례대표를 몇 프로를 올리기 위해서 나간다. 이걸 사실은 거의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참여자 B, 24.4.1.).

3. 소결: 제3정당 후보의 한계점 확인

종로구 사례를 통해 드러난 금태섭 후보의 선거공약 제시의 미비와 선거운동 과정상의 어려움은 제3정당이 양당체제 속에서 효과적인 정치적 역할을 수행하는 데 여러 상황적 제도적 제약이 있음을 시사한다. 다시 말하면, 이는 단순히 후보 개인의 전략적 미흡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라, 한국 정치에서 제3정당이 직면하는 근본적인 구조적 문제가 있음을 의미한다.

무엇보다 지역 조직과 네트워크의 부재는 제3정당 후보가 지역 밀착형 선거를 전개하는 데 가장 큰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양당 후보들은 오랜 시간 지역에서 활동해 온 지방의원과 당원 네트워크의 지원을 통해 지역 현안을 파악하고 유권자들과의 밀접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었다. 반면 금 후보는 지방의원 및 지역 인사들과의 협력 없이, 캠프 내 정책 전문가들이 외부 사례를 참고해 공약을 수립하고, 외부인을 동원해 선거운동을 전개할 수밖에 없었다. 이로 인해 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공약을 마련하기가 어려웠으며, 선거운동에서도 유권자와의 긴밀한 접촉 기회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다. 신생 정당의 후보가 지역 사회에서 유권자들과 신뢰를 쌓기 위해서는 활발한 활동과 함께 지역 네트워크 형성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반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제3정당의 선거과정은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다.

둘째, 중앙당의 지원 부족은 선거과정 전반에 걸쳐 제3정당 후보의 자원 활용에 제한을 초래하였다. 양당 후보들은 중앙당의 조직적 지원을 통해 선거 전략과 정책 방향을 강화할 수 있었다. 특히 민주당은 중앙당 정책연구원을 통해 각 후보들이 지역 맞춤형 공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했다. 반면 인적·물적 자원이 빈약한 소수 정당의 후보들은 중앙당 차원의 일관된 정책 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웠다. 금 후보는 개인의 정치적 비전을 중심으로 공약을 구성할 수밖에 없었고, 이로 인해 공약의 구체성과 현실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중앙당의 조직적 지원 부재는 유세과정과 홍보활동에도 영

향을 미쳤다. 특히 유력 인사나 연예인 등 외부자원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였다. 이는 금 후보가 메시지의 전달력 및 유권자와의 연결성을 강화하는데 적지 않은 애로를 겪게 하는 요인이 되었다.

셋째, 기호 확정 및 지역구 획정 지연은 제3정당 후보들로 하여금 선거운동 초기 단계부터 어려움에 처하게 하는 요소였다. 양당 후보들은 기호가 조기에 확정되었으므로, 선거 초반부터 당의 위치를 명확히 하고 일관된 전략을 펼칠 수 있었다. 하지만 금 후보의 경우는 기호가 투표일 한 달여를 앞두고서야 결정되어 유권자들에게 기호와 정당의 일체감을 알리는데 상당한 애로를 겪었다. 또한 지역구 획정이 지연됨으로써 지역 상황에 맞춘 전략 수립이 제약되었다. 선거지원 자원이 본래부터 부족한 신생정당에게 있어, 이 같은 제도적 제약은 제3정당 후보가 안정적인 기반 위에서 선거운동을 펼치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문제점들은 제3정당이, 양당의 강력한 조직력과 전당 차원의 자원 활용 능력 앞에서, 선거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어려운 이유를 잘 보여준다. 이는 또한 제3정당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역 기반 네트워크 구축과 중앙당 차원의 지원체계의 강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함도 알려준다. 지역사회에 뿌리를 내리고 유권자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조직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제3정당은 지역 밀착형 공약 및 현실적 선거 전략을 체계적으로 마련할 수 있다. 중앙당 차원의 연구와 자원 지원을 통해 후보들이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정책을 수립하고, 선거운동에서 일관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 더욱이 양대 정당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각종 제도상의 문제점들도 개선해야 한다. 기호 선점, 지역구 획정 지연, 엄격한 후보자 토론회 참석 기준, 소선거구제 등의 현행 제도는 양대 정당의 카르텔 정당체제(Cartel Party System)를 공고화하는 요인이 되었다.

V. 결론

본 연구는 제22대 총선 서울시 종로구의 제3정당 후보의 선거과정을 분석함으로써, 한국 정치에서 제3정당이 직면한 한계를 규명하고 그 가능성을 탐색하였다. 먼저 제3정당의 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해 해외 사례와 관련 문헌을 폭넓게 검토하였다. 미국에서는 제3정당을 양당 외의 정치적 세력으로서 변화와 혁신을 요구하는 유권자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등장한 정당으로 규정할 수 있었다. 한국적 맥락에서 제3정당은 전국적·보편적 지지를 확보하고 양당체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며 교섭단체 구성을 목표로 하는 세력

으로 정의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정의에 따라 종로구의 개혁신당 금태섭 후보를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종로구는 전통적으로 정치적 위상이 높은 지역으로, 유명 정치인이 출마하고, 정치적 의식이 높은 유권자가 다수 존재하며, 승자편승 투표행태와 스윙보터의 성향이 뚜렷한 곳이었다. 금태섭 후보는 ‘원칙과 소신’을 통해 제3정당을 주도하는 정치인으로서, ‘촛불과 태극기를 함께 품은 장소’인 종로에 가장 어울리는 정치인임을 강조하며 출마를 선언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지역적 특성과 후보자의 의욕에도 불구하고, 금태섭 후보는 선거공약 제시와 선거운동 과정에서 여러 한계를 드러내며 약 3%의 미미한 득표율로 낙선하고 말았다. 그러면 이번 총선에서 금태섭 후보와 개혁신당이 실패한 이유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가?

금 후보를 통해 바라본 제3정당의 실패 요인은 후보 개인의 전략적 실책 또는 노력의 부족이 아닌, 구조적 제약에서 찾아야 할 점이 크다고 생각된다. 첫째, 제3정당은 지역 조직과 네트워크의 부재로 인해 지역 맞춤형 공약을 수립하거나 지역 유권자와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이는 양당 후보들이 지방의원 및 지역 네트워크의 지원을 통해 지역 현안에 대응한 것과 대비된다. 둘째, 조직적 지원의 부족은 제3정당 후보의 공약 수립과 선거운동에서 양적·질적 한계를 초래하였다. 이로 인해 제3정당 후보는 개인의 정치적 역량에 의존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 유권자에게 전달할 수 있는 명확한 메시지와 구체적 공약이 부족해지는 한계가 드러났다. 마지막으로, 기호 확정 지연, 지역구 획정 지체, 엄격한 후보자 토론회 참여 기준 등 제도적 문제들도 제3정당의 입지를 더욱 약화시키며, 양당 체제를 강화하는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한국에서 제3정당이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는 미국의 그것과 비교할 때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즉 미국의 경우 제3정당 실패의 주된 원인은 승자독식 선거제도와 선거자금 동원 등의 제도적·법적 장벽이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지역 기반의 부족과 중앙당 차원의 일관된 지원의 부재에 기인하는 점이 크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의 제3정당은 지역적 기반이 미비하여 지역 맞춤형 공약을 수립하거나 유권자와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또한 중앙당 차원의 조직적 지원이 미비하여 개인의 정치적 역량에 의존하게 되었고, 이는 공약의 일관성 부족과 메시지 전달의 어려움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이는 역설적으로 제3정당이 탄탄한 지역 기반과 조직적 지원을 갖출 경우, 선거에서 유의미한 지지를 얻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것을 시사한다. 실제로 이준석 의원이 화성을 지역구에 출마해 접전 끝에 당선된 사례는 제3정당의 향후 발전 가능성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화성을 지역구는 동탄2신도시 지역으로, 모든 정당의 지역적 기반이 형

성되지 않은 지역이었다. 이는 제3정당이 폭넓게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고, 이준석 의원은 지역 특성을 십분 활용하여 개별 아파트 단지에 특화된 공약을 준비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 이후 여론조사에서 이준석 의원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자, 개혁신당은 당의 모든 역량을 화성을 지역구에 집중하였고, 그 결과 이준석 의원은 개혁신당 유일의 지역구 당선자가 될 수 있었다.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제3정당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 풀뿌리 조직의 강화이다. 미국의 제3정당 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1992년 미국 대선에서 페로 후보의 선전 요인 중 하나는 풀뿌리 유권자 자원봉사 조직의 활동이었다.⁵¹⁾ 따라서 제3정당이 지지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지역 사회에서 당원 네트워크의 광범위한 활동과 함께, 지방선거에서 기초·광역의원을 최대한 많이 당선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본 연구의 인터뷰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지방의원은 지역민과 가장 밀접하게 접촉하는 사람들이므로, 이들의 최대한 확보는 지역에서 제3정당의 활동 반경을 넓혀주는 첩경이 될 수 있다.

둘째, 정당의 정책역량 강화이다. 기존 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제3정당은 양당의 정책과 차별화된 보다 혁신적이고 실질적인 사회·경제정책을 내세울 수 있는 여지가 있다.⁵²⁾ 특히 제3정당의 새로운 이슈 제시는 양당에 만족하지 못하는 유권자들에게 매력적인 대안이 될 수 있으며, 이는 곧 유권자의 적극적 선택으로 이어질 수 있다. 나아가 정책 역량 강화는 제3정당만의 아이덴티티를 명확하게 할 수 있으며, 각종 미디어 환경에서 제3정당의 주목도를 환기시킬 수 있게 한다.

셋째, 단순다수제 선거제도 개편이다. 현재 한국의 선거제도는 각급 비례대표와 기초의회 의원선거를 제외하고는 단순다수제를 채택하고 있다. 이런 제도 하에서 유권자는 사표방지심리로 인하여 제3정당에게 지지를 주는 것을 주저하게 된다. 제3정당의 지지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중대선거구제나 결선투표제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초 지방의회에 소수 정당의 후보들이 가능한 많이 진출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현행 2~3인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기초의원선거 지역구 정원을 4~5인으로 대폭 늘리는 것도 중요해 보인다.

다음으로 본 연구의 한계와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알아본다. 먼저 제3정당 연구가 종로구 사례에 한정되어 다른 지역에 일반화하기 어려운 점을 지적할 수 있다. 특히 앞에

51) Stone, W. J. and Rapoport, R. B., *Three's a Crowd: The Dynamic of Third Parties, Ross Perot, and Republican Resurgence*, Ann Arbor, MI: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2007.

52) Green, J. C. and Herrnson, P. S., *Multiparty Politics in America: Prospects and Performance*, Lanham, MD: Rowman & Littlefield, 2002.

서 언급한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의 선거운동을 함께 관찰하지 못한 점에 아쉬움이 남는다. 그리고 선거운동 기간만을 분석해 예비후보 기간의 활동을 별도로 다루지 못했던 점도 논문의 완결성이라는 점에서 부족한 점이라고 생각된다. 다양한 지역의 사례가 보완되고 예비후보 활동까지 포괄적으로 다루어질 때, 제3정당의 한계와 가능성은 보다 충분히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은 앞으로의 과제로 삼기로 한다.

참고문헌

- 강원택, “정치적 기대수준과 저항투표: 단순다수제 하에서 제3당에 대한 지지의 논리”, 『한국정치학회보』, 제32권 제2호, 1998, pp.191-210.
- 김도훈, 강원택, “2020년 국회의원선거 분석: 누가 왜 국민의당에 투표했는가?”, 『한국정치연구』, 제31권 제1호, 2022, pp.59-84.
- 김소정, 윤종빈, “한국 유권자의 제3정당 지지”, 『한국정당학회보』, 제18권 제2호, 2019, pp.29-66.
- 김정훈, 한상익, “신화의 붕괴, 그리고 희망의 정치?: 20대 총선에서 나타난 유권자 지형의 변화”, 『경제와사회』, 제110호, 2016, pp.12-37.
- 노무현, 『운명이다』, 파주: 돌베개, 2010.
- 류재성, “분할투표의 유형 및 동기: 20대 총선 분석”, 『한국정당학회보』, 제19권 제1호, 2020, pp.59-95.
- 지병근, “한국에서 제3정당의 실패요인: 새정치연합 사례 분석”, 『인문사회과학연구』, 제44호, 2014, pp.63-94.
- 지병근, “‘제3정당’에 대한 호남 유권자들의 선호와 투표결정: 호남지역의 정치발전에 대한 함의”, 『아세아연구』, 제59권 제4호, 2016, pp.44-78.
- 주민혜, “국민의당 투표자 분석: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이탈자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제44권 제2호, 2018, pp.249-277.
- 장승진, “제20대 총선의 투표선택: 회고적 투표와 세 가지 심판론”, 『한국정치학회보』, 제50권 제4호, 2016, pp.151-169.
- Adams, J. and Merrill, S., “Why small, centrist third parties motivate policy divergence by major partie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100, no. 3, 2006, pp.403-417.
- Bennett, J. T., *Stifling Political Competition: How Government Has Rigged the System to Benefit Democrats and Exclude Third Parties*, New York: Springer, 2008.
- Duverger, M., *Political Parties: Their Organization and Activity in the Modern State* (B. North & R. North, Trans.), New York: Wiley, 1954.
- Green, J. C. and Herrnson, P. S., *Multiparty Politics in America: Prospects and Performance*, Lanham, MD: Rowman & Littlefield, 2002.
- Riker, W. H., “The two-party system and Duverger’s law: An essay on the history of political scienc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76, no. 4, 1982, pp.753-766.
- Rosenstone, S. J., Behr, R. L. and Lazarus, E. H., *Third Parties in America: Citizen Response to Major Party Failur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6.

- Spradley, J. P., *Participant Observation*, Long Grove, IL: Waveland Press, 2016.
- Stone, W. J. and Rapoport, R. B., *Three's a Crowd: The Dynamic of Third Parties, Ross Perot, and Republican Resurgence*, Ann Arbor, MI: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2007.
- Tewksbury, D., "The role of comparison group size in the third-person effect", *International Journal of Public Opinion Research*, vol. 14, no. 3, 2002, pp.247-263.
- "개혁신당·새로운미래·새로운선택? ... 제3지대 신당, 도대체 뭐지", 『경향신문』, 2024년 2월 11일.
- "금태섭 '국민의힘 입당, 변화에 기여한 뒤 할 것...노재승 입장표명 있어야'", 『뉴스핌』, 2021년 12월 9일.
- "국민의힘 윤리위, 이준석 대표 '당원권 정치 6개월' 징계 결정", 『KBS뉴스』, 2022년 7월 8일.
- "류호정·장혜영과 함께... 조성주 '이젠 6411버서서 내릴 시간'", 『오마이뉴스』, 2022년 9월 26일.
- "마누라가 이준석 짝이라고...막판 총력전 나선 개혁신당", 『한국경제』, 2024년 4월 9일.
- "민주 탈당파 '새로운미래' 창당...이원욱·조응천은 이탈(종합)", 『연합뉴스』, 2024년 2월 4일.
- "민주연구원, '거대 야당' 정책 드라이브 밀거름 되다", 『매일신문』, 2024년 6월 27일.
- "새로운선택 금태섭, 종로 출마... "촛불과 태극기 모두 품은 곳"", 『연합뉴스』, 2024년 2월 6일.
- "선진 '줄타기 행보' 딜레마", 『연합뉴스』, 2009년 7월 5일.
- "우리가 주류 "이준석 몽니"...개혁신당 주도권 쟁탈전 시작되나", 『연합뉴스』, 2024년 2월 16일.
- "이낙연, 11일 국회서 탈당 기자회견...신당 창당 공식화", 『뉴시스』, 2024년 1월 8일.
- "이낙연, 이준석과 결별 수순... '새로운미래'로 독자 행보", 『한국경제』, 2024년 2월 19일.
- "이준석 개혁신당, 공천관리위원장에 김종인 선임", 『조선일보』, 2024년 2월 23일.
- "[총선핫플] 정치1번지 종로 하마평 무성, 국힘 하태경·민주 곽상언 출사표", 『비즈니스포스트』, 2023년 12월 13일.
- "'탈당' 설훈·홍영표 새로운미래 합류... '진짜 민주당'", 『연합뉴스TV』, 2024년 3월 7일.
- "합쳐도 6%인 이준석·이낙연 신당...제3지대 동력 위기[數싸움]", 『헤럴드경제』, 2024년 2월 4일.

【 Abstract 】

The Limits and Possibilities of Third Parties
: Focusing on the Jongno-gu Constituency in the 22nd General Election

Hur Pilyun · Ha sehun

This study analyzes the limits and possibilities of third parties in South Korean politics, focusing on a third-party candidate in the Jongno-gu constituency during the 22nd General Election. Using participant observation and in-depth interviews, the study examines the structural and institutional challenges faced by third parties. To establish a clear definition of third parties, relevant studies from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were reviewed, and New Reform Party was selected as the subject of analysis. The findings reveal that the primary difficulties faced by third parties in South Korea stem from the lack of regional support bases and organizational infrastructure. Third-party candidates struggled to develop constituency-specific campaign pledges and build close relationships with voters, which ultimately undermining their electoral competitiveness. Furthermore, various institutional constraints further weakened the position of third parties.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proposes strategic measures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third parties, including strengthening grassroots networks, formulating distinctive policy platforms, and implementing political system reforms.

Key Words : 22nd General Election, Third Party, New Reform Party, Jongno-gu constituency, Participant Observation

• 논문투고일 : 2025년 1월 30일 / 논문심사완료일 : 2025년 2월 16일 / 게재확정일 : 2025년 2월 18일